



머리글

송정섭 시몬 신부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는 좋은 사람인가요?

최근에 ‘좋은 사람’(2021)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언제나 학생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교사였던 주인공은 어느 날 교실에서 일어난 도난 사건과 딸의 교통사고가 자신의 학생 한 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주인공 교사는 그 학생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제자를 믿어줄 때는 ‘좋은 사람’ 같다가도, 자기 잘못을 외면할 때는 제자를 의심하는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는 저 역시 그 학생을 믿다가 의심하기를 반복하면서, ‘나는 좋은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만난 한 수용자가 있었습니다.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너무나 앳된 얼굴의 형제였습니다. 마약을 해서 들어왔는데, 다음 주에 출소한다고 했습니다. ‘축하한다, 기분이 어떠냐’ 물으니 의외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두렵다고 하더군요. 다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몇 번을 다짐해보아도 자신이 없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더니 괜찮다고, 그래도 용기 내어 잘해보겠다고 합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 다시 안 만났으니 지금까지 잘 이겨내고 있는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문득, 마약이 아니어서 담장 밖에 있을 뿐이지 재물이나 권력과 같은 다른 중독에 빠져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저 앳된 수용자보다 ‘좋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 매주 미사에 나오고 계시는 한 자매님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동료 수용자 걱정만 합니다. 동료 수용자의 자녀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는 도와줄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하고, 형편이 어려운 동료 수용자에게 자신의 영치금을 털어서라도 겨울 내복이나 양말 등의 생필품을 보충해주고 싶어 합니다.

이런 수용자들을 만나면서 저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저를 표현하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자’를 의미하는 출입증을 받아 목에 걸고 들어갑니다. 밖에서는 인간 누구누구이고 성직자라는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교정시설 안에서는 수용자들이 이름 대신 수감번호를 받듯 저 역시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됩니다. 철창문을 하나씩 통과할 때마다 담장 밖에서 저라는 한 사람을 포장하고 있던 껍데기들이 하나씩 벗겨지는 기분입니다. 사제로서 살아가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세속의 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이지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법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함 많은 죄인인 사람, 그래서 하느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 자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도구로 불러주신 하느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느끼게 됩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어서, 내가 더 잘나서,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아서, 내가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님을 묵상 중에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부족하고 흠 많은 사람이기에, 하느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길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느님의 기준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각 교정시설 추석 약과 지원



9월 2일(목) 추석을 맞이하여 서울구치소(2,800개), 서울동부구치소(2,500개), 서울남부구치소(2,300개), 서울 남부교도소(1,200원) 약과, 고봉중고등학교(250개) 치킨과 분류심사원(250개) 햄버거가 전달되었습니다. 추석 간식으로 조금이나마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남부구치소 남사 5기 인성교육



9월 14일(수)~16일(금), 20일(화) 서울남부구치소 남사에서 5기 인성교육이 엄기홍 (문화 영상 전문가) 강사, 권희진 (원예치료 전문가) 강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수용자들은 “지루하지 않게 아낌없이 교재를 사용하며, 혼자 설명하는 것이 아닌 함께 참여하면서 발표를 자연스럽게 유도하여줌으로써, 새로운 곳에서의 타인들 앞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며, “자기효능감,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따뜻함에 대한 새로운 표현 방법을 알게 되어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개인으로서의 성장과 타인과의 관계를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 2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



10월 6일(목) 홍대 청년문화공간 JU에서 임재성 변호사의 진행으로 가수 이은미, 가수 장필순이 참여한 ‘세계 사형폐지의 날 20주년 기념 작은 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와 가톨릭신문사가 후원하였습니다. 현대일 루도비코 위원장 신부는 음악회 인사말을 통해 “폭력을 폭력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사형폐지는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되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사형폐지의 날



10월 7일(금) ‘제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관련 단체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강은미, 박주인 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종교·인권단체로 이루어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의 공동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오는 12월 30일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이 중단되어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지 25년이 됩니다. 세계사형폐지의날 20주년을 맞아 이 기념식을 공동주최한 국회의원들과 인권사회단체들은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서 폐지되기를 기원하며 결의하였습니다.

(사진: 권철승 의원실 제공)



구치소에서 만난 예수님

강연실 세실리아_서울구치소 최고수 봉사자

누구에게나 하느님의 모상이 심겨져 있다는 말씀에 희망을 품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7년 전쯤에 서울구치소 여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를 나오는 수형자 중에 세례를 받고 싶은 분들은 통신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봉사자들이 질문을 받고 도와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침 본당에서 교리 봉사자로 봉사하고 있었던 터라 수형자 중 예비자들을 돕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세례식이 다가오면 신부님께서 면담하시고 면담에서 문제가 없으면 세례 준비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자매가 혼인장애 상태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세례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자 자매님께 상황을 잘 설명하였고 다시 준비해서 세례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집회에 가보니 열심히 집회에 참석하던 그 자매를 비롯해 같은 방 자매들이 집단으로 집회에 나오지 않았고 “세례받고 싶은 마음이면 되지 이해 안 되는 이유로 세례를 주지 않는다며 그런 하느님이라면 믿지 않겠노라”라며 나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 자매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전해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집회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이분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준비하면서 잠깐의 시간이 있었는데, 함께하시는 교도관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자매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부탁드렸습니다. 교도관님도 고민하시더니 다른 교도관을 전화로 불러주셔서 함께 복도에서 단체로 집회를 보이췄했던 방의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자매들은 마치 자기편이 되어준 언니에게 이르듯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과 마지막 단계에서 세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실망했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사회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느님도 나를 내치시네”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그 마음 안다고 도와드릴 테니 집회에 참석하면 어떠냐고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못이기는 척 따라나선 자매들은 집회 장소에 합류했고 은총의 미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데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제 귀에다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그 자매 안에 계신 외롭고 속상한 예수님을 만난 듯했습니다. 그 순간은 오직 마음 상한 그 자매만이 제 앞에 있었고 사랑을 가득 담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자매와 내 뺨에 흐르는 눈물은 하나였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을 만난 사연입니다. 최근에는 최고수 형제들을 만나고 있는데 한 최고수와의 일입니다. 얼마 전 최고수 형제님께서 질문이 있다며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써 오셨습니다. 신자가 된 지는 여러 해지만, 몇 달 전부터 마음을 다잡고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고 성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또 하느님에 대해서도 성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으며,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지 또 어떻게 하느님을 느끼는지 물으셨습니다. 마치 “너의 신앙은 어때?”라고 물으시는 듯했습니다. 그때 제게도 성모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묵주기도가 잘 안되고 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성모님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하고 기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던 중 성모 성지에서 만나게 되었던 성모님 체험도 나누며, 기도 중에 간절한 마음으로 청하다 보면 적당한 때에 꼭 알려주실 거라며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여러 곡의 성가도 부르고 좋아하는 성경 구절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 그 형제로부터 장문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쓴 편지는 그의 신앙 고백이고 묵상이며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주님께서 이미 이 형제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생각에 뭉클했습니다.

저는 수형자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늘 가볍습니다. 봉사를 시작할 때 누구에게나 하느님 모상이 심겨 있다는 말이 봉사할 수 있는 용기를 내었는데,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수형자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보시려거든 봉사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글을 마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



기브온 주민들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기브온은 ‘언덕 위의 도시’라는 뜻처럼, 팔레스타인 중부, 예루살렘 서북쪽의 해발 약 792m 위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사실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 한 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는 아이보다도 더 큰 성읍이고, “그곳의 남자들은 모두 용사”(여호 10, 2)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이 예리코와 아이를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브온의 히위족은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과 함께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았기에(여호 9, 2),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승산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도 먼 고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걸어온 것처럼, 마른 빵과 갈라진 술 부대, 낡은 옷을 입고 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평화 조약이라기보다, 기브온의 항복 선언이고,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된다는 노예 계약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종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어주시요.”(여호 9,11)

이 계약을 맺은 후,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이 문제가 됩니다. 먼 곳에 떨어진 부족이 아니라, 가까이 지내는 부족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일렀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가운데에 살면서도 ‘저희는 아주 먼 고장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속였소? 이제 그대들은 저주를 받아, 그대들 가운데 일부는 영원히 종이 되어 내 하느님의 집에서 쓸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길게 될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이 땅을 모두 여러분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여러분 앞에서 멸망시키라고, 주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 때문에 목숨을 잃을까 몹시 두려운 나머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나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리의 눈에 좋고 옳게 보이는 대로 저희 일을 처리하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일을 이렇게 처리하였다. 곧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서 구해 주고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공동체가 쓸 나무와 주님의 제단에서 쓸 나무를 패는 자로, 또 물을 길는 자로 정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주님께서 선택하시는 곳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여호 9,22-27)

비록 기브온 주민이 속임수를 써서 거짓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이후에도 주님의 제단에서 쓰일 나무를 패기도 하고, 물을 길는 등의 잡일을 하며 살았는데, 바빌론 유배 이후에도 성전 재건에 앞장서는 ‘성전 막일꾼’으로 주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1역대 9,2; 느헤 11,21 참조). 기브온의 배신에 다른 아모리족의 다섯 임금이 기브온을 침략하지만, 계약대로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 전쟁을 나시고, 하느님 역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여호 10,4-14). 거짓 계약에 대한 반발감, 순수 단일 민족 환상, “이스라엘 자손들과 유다에 대한 열정”(2사무 21,2)으로 사울 왕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경우에도 하느님께서서는 3년의 기근을 내리며 기브온 사람들 편에 서십니다.

과연 하느님 앞에 설 자격이 될까? 오랜 시간 하느님을 멀리하고, 떠나 있었는데, 구치소에 와서 비로소, 혹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만 하느님께 청하는 모습이 죄스럽다고 말하는 형제, 자매님을 뵙습니다. 회사일, 가정일 바빠서 성당에 못 나왔다 여러 이유를 대어보지만, 기도는 언제라도 할 수 있음에, 핑계이고 거짓일 수 있습니다. 세례 받기 전 하느님을 믿습시다를 외치고, 악마를 끊습시다를 되뇌였지만, 과연 온전히 믿는 것인지, 끊겠다는 강하게 다짐을 했는지 되돌아보면 순수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게 하느님께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부족하게 하느님께 나아가 행복을 하는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느낍니다. 비록 살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느님 이름 때문에 기꺼이 종살이를 하겠다고 신앙고백을 하는 기브온 사람들, 그 모습이 거짓이었어도, 하느님은 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갑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기쁨과희망은행 창업 교육 강의를 마치고

이종철 대표 / 주식회사 제이씨앤컴퍼니



〈교정시설 내 기쁨과희망은행 출소예정자 창업교육〉

처음 기쁨과희망은행 관계자님으로부터 교정시설 창업 교육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즉시 승낙하였습니다. 저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 사회를 위해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창업 교육은 늘 진행하고 있지만, 교정시설에서 출소를 앞둔 수용자들에게 창업 교육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큰 영광이었고 사회공헌의 실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교정시설에서(교도소) 강의한다고 하니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혀 걱정스럽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진심으로 하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처음 경험하는 환경과 구성원분들에 대한 강의는 고민되었습니다. 첫 안양교도소에서 강의를 시작해서 세 번째 서울남부교도소 강의 때는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과 학교에서 강의를 20년 이상 하고 있지만 저는 주어진 시간의 길고 짧음을 떠나 제 마음을 다해 최대한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강의를 듣는 분들의 시간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 강의에서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이유에서 교정시설에 입소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이분들도 우리의 구성원이며 소중한 국민입니다. 부디 이번 상황을 바탕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도 출소자들에게 선입견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의 창업 교육이 조금이나마 진로를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저도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명

한 손갈 뜯니다
 엄마의 죽기 전 제게 한 말
 먹어라 제발 먹어라
 그 말에 밥알을 삼키지만
 슬픔에 목구멍을 넘기지 못하고
 모래알을 씹듯
 곱씹고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겨우 꿀꺽 삼킨
 내 어미의 말
 살아라 제발 살아라
 그리고 맛있다 맛있다
 그리 노래하거라
 나는 밥손갈을 뜯 때마다
 그녀를 그립니다
 이 한 손갈의 연명으로
 난 오늘도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갑니다

우산이란 시를 받고도 신부님의 존함을 몰라 감사의 답신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스럽네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시가 엄청나게 길었네요. 신부님께서 읽어주실 땐 짧게 느껴졌는데, 시를 좋아하시는
 것 같기에 부끄럽지만 제가 쓴 시 한 편 적어 보내드립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신부님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누구나 있으니까요.

강OO 드림

2022년 12월 5일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 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 일시: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중서울지역 길음동성당, 동서울지역 광장동성당, 서서울지역 양천성당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는 11월부로 종료되었습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사제들은 매일

후원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 미사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교정사목 휴대폰 번호: 010-3732-5093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채널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카카오채널입니다.

모바일에서도 손쉽게 공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 코드를 찍으면

채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카카오채널

원주교구 엠마오농장 "히카마" 판매

* 히카마는 당뇨, 고지혈증, 장 건강,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 히카마 생과

- 5kg 29,000원 / 10kg 50,000원

● 당뇨환자분들도 드실 수 있는 히카마 수제 조청

- 600g 1병 20,000원 / 600g 2병 40,000원

●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한 저나트륨 히카마 소금(신안 천일염)

- 250g 1병 6,000원

※ 택배비 별도

• 주문 문의: 010-9057-1268

• 계좌: 351-1240-5877-53 / 농협 / 황금정(엠마오농장)

● 행사 알림

• 9월 1일(목)~12월 1일(목) 제23회 교정시설자원봉사자교육 / 교정사목센터 / 14:00 (매주 목요일)

• 11월 7일(월) 사형수를 위한 위령 미사 / 광탄나자렛묘원

• 11월 14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길음동성당 / 10:30

• 11월 21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광장동성당 / 10:30

• 11월 28일(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 양천성당 / 10:30

●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9/15~10/13)

2022년 9월~10월에는 유남순 바울라, 이영주 마리아, 이혜린 소화데레사, 조인기, 천배순, 홍정옥 카타리나, 황성옥 실비아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납된 후원금을 지로로 납부할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한 장으로 납부하면 수수료가 절약됩니다.

(장당 210원~240원 수수료 부과)

※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신 후원회원분들은 010-3732-5093 교정사목 휴대폰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